

C-10. 발치창에 삽입한 임시 수복물의 치간유두 보존효과

조윤정, 김성조, 최점일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연구 배경

심한 치조골 흡수를 나타내는 전치부의 발치 후 연조직의 외형적 변화는 수복물의 심미적 회복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발치 후 즉시 임시수복물을 발치창에 삽입하는 기법을 활용하여 발치 창 주위의 연조직 변형을 최소화하고 치간유두 및 협설 폭경을 최대한으로 유지한 다수의 임상 증례를 보고한다.

연구방법 및 재료

상악 전치부에 심한 치조골 흡수를 보이는 환자들의 상악 전치를 최대한 비외상적으로 발치 하였다. 발치 당일 지대치 삭제를 시행하고 치간유두와 치조골 협설 폭경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형태의 ovate pontic 형태의 임시 수복물을 발치와 내로 삽입하였다. 임시 수복물 장착 후 주기적인 점검과 임시 수복물 형태 조정을 통해 발치와 주위 연조직의 조화롭고 양호한 치유와 성숙을 유도하였다. 환자의 발치 전 방사선 사진과 임상사진 그리고 보철물 장착 후의 임상사진을 채득하여 발치 전후의 치간유두와 치조제 협설 폭경 및 연조직 변형정도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환자들은 발치 전 상악 전치부에 골 흡수를 보였기 때문에 발치 후 치조제의 협설 폭경 감소와 치간유두의 소실이 우려되었으나 발치 즉시 ovate pontic 형태의 임시 수복물을 삽입하여 조직의 치유를 관찰한 결과 발치와 주위 연조직의 변형이 최소로 억제되었다. 치간 유두와 협설 치조제 폭경이 발치 후에도 양호하게 유지됨이 관찰되었고 자연스러운 수복형태에 대한 환자들의 심미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결론

발치 후 즉시 삽입한 ovate pontic 형태의 임시 수복물은 치조제의 협설 폭경 유지와 치간유두 형태 보존에 매우 효과적인 술식으로서 최종적으로 심미적 보철을 가능하게 한다.